

교육과 기업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국산 신약이 국내 제약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1897년 국내에서 제약산업이 시작된 지 106년 만에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신약이 첫 탄생했다. 또 우리나라는 FDA를 통과한 신약 제조 10여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따라서 2007년 이후 4억달러 이상의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Bio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기 시작하고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쾌거는 한국이 바이오기술(B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의 신기술화, 고부가가치화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왜 변해야 하는가?

우리는 1만년 가깝게 농경정착사회에서 살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즉 권력, 민주주의, 예술 등은 모두 정착문화 성격이 짙다.

정착사회는 수직마인드를 기초로 삼고 있다. 잘만하면 모든 것을 평생 보장 받는 종신형 사회이고, 식불형 사회이며, 수직 사회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성을 쌓고 살던 정착민의 수직적 사고로는 21세기를 이끌 수가 없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들이 질서화하고 있다. 이런 큰 물줄기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하여 수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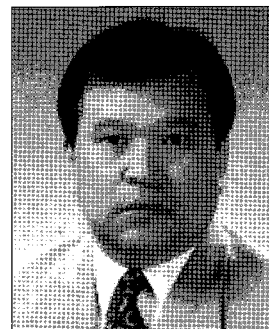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 되어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Bio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중심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확고한 위치를 굳혀야 할 시기이다.

첨단을 걷고 있는 Bio 산업은 전략(Strategy), 프로세스(Process), 기술(Technology), 사람(People)의 4가지 요소에서 과감한 변신을 이뤄야 경쟁에서 차별화 시킬 수 있다. 4가지 요소 중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을 잘하지 못하면 성과나 효율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조직구성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지시 통제를 받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자기발전적 업무수행자로 거듭나는 인재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이러한 변화를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어떤 인재로 거듭날 것인가?

옛날에 철길을 달리던 기차는 제일 앞에 선 기관차의 힘에



컨설턴트 인터내셔널

유 항 봉 대표이사

의해서 움직였다. 뒤에 달린 객차와 화차는 오로지 앞의 기관차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속도도 느려지고 힘이 부족하여 경사가 심한 곳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리더 하나만 믿고 리더의 질서와 명령에 의해 움직여지던 과거조직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차를 찾기가 어렵다.

각 차량마다 장착되어 있는 모터를 전기의 힘으로 돌려 각자의 동력으로 기차를 움직인다. 이 방식은 기관차가 앞에서 혼자 끌고 가는 것에 비해 몇 배의 힘과 속도로 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조직은 전략, 프로세스, 기술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개개인은 스스로 각자의 모터를 작동하여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시너지가 상승된다.

경영환경은 CEO가 하위 기능의 인재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이는 CEO 스스로가 먼저 철저한 자기관리 및 끊임없는 학습, 자기계발을 통해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Self Leader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스스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격려를 통해 이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성취감이나 개인의 발전 등을 활용한 보상과 실패에 대해서도 학습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질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Bio 업체들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자율성과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기업문화의 혁신은 기업의 사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우리 모두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진할 때이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스스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이룩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체동력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한다.

결국 조직발전의 주체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역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을 때 조직과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